

# 痛風症에 對한 小考

學術委 顧問 李 相 哲  
(마산 東慶韓藥房)



## 1. 緒 論

**痛**風을 東醫寶鑑 風門의 歷節風項에서 말하기를 古方에서  
는 “通痺”라 하였고 今人들이 “痛風”이라 하였는데 모두  
汗出後에 入水하였거나 또는 飲酒後에 當風한 所致라고 하였다

근자에 이르러 많은 患者들은 醫療機關 利用度에 있어서 西洋  
醫學에 基礎한 洋方을 選好하여 對證療法的인 瞬間鎮痛治療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을 보면 그저 안타깝기만 하다. 우리의 韓醫學의인 根本療法은 뒤로 밀리고  
應急以後야 어찌되든 임시만 생각하는 患者를 보면 그저 안타깝기만 하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대로 學術 발전에 힘써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모두다 한마음으로 서  
로서로가 이는 지식을 발표하고 토론하여야 하겠기에 筆者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하여  
몇 자 적어 보고자 붓을 들었다

痛風은 글자 그대로 이겨내기 힘들 정도로 苦痛이 대단한 病症이다 아주 심한 것을 白虎  
歷節風이라 하여 범에 물리는 듯하였다고 했으니 가히 그 아픔을 짐작할 수 있다 할 것이다.

洋方에서는 그 病理나 病原, 病狀들의 尖端科學道具를 이용하여 長足の 發展을 하여 가고  
있는데도 우리 韓醫學에서는 以管窺天하는 예전 그대로만 踏襲하고 있는 것같아 自省의 杼  
우침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에 本稿에서는 痛風에 對한 根源과 病狀 및 治療藥材에 對해서 일부분이나마 그 概說을  
敍述하여 보고자 한다.

## 2. 痛風에 對한 概說

痛風은 平素 膏粱珍味와 酒肉過食 등이 原因의 하나이며 다음 食住의 無關心으로 大氣圈  
의 風寒濕氣가 身體의 어느 部位에 浸襲하여 邪가 되고 이어 留滯되면서 生理現狀과 經絡活  
動을 阻害하고 機能을 麻痺케 하여 痛症이 始作되는 것이다.

近代에 이르러 生活이 豊足하게 되자 高량진미를 과식하고 色慾을 濫用하여 얻어지는 경우도 많으니 때문에 氣血이 衰退되는 老年이 되면 筋骨은 衰弱해지고 活動이 鈍化되며 體位는 前倒되고 背位는 龜型으로 되어 가슴을 펼 수 없게 되는 경지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胃內濁液이나 外邪三氣가 凝滯不解되니 胃內粘膜은 呼氣가 不充하고 久滯로 成징케 되는 것이다. 이런 연유로 이들 邪氣와 合勢한 外邪三氣는 軟骨邊의 屈伸處에 受寒風하게 되는 故로 痛症이 發作되면 溫灸나 溫浴을 顯하게 되지만 甚한 溫浴은 오히려 크게 해로워 10中 6,7은 發作이 極甚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富裕한 사람들은 身體가 衰退하는 것을 自嘆하고 憂鬱症이 되니 高價를 따지지 않고 攝取하는 營養分은 當卮을 誘發할 뿐이니 營養不足은 더해 갈 뿐이고 盜汗症만 심해 갈 뿐이다. 이에 연유하여 서서히 陰不足症이 찾아오고 表裏가 不和하여 病勢는 各種 變症으로 發展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補陰益氣에 매달린 사람들의 그릇된 觀念이 유발한 잘못으로서 氣血이 不調和하고 上通下達이 되지 못하여 邪氣가 凝結되므로 바로 痛風이 始作된 것이다. 이어 食之太倉인 脾胃까지 合併이 미치게 되므로 方劑時엔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以上으로 痛風에 대한 概說을 論하였으나 이 痛風이 慢性化되어 그 2期로 접어들면 病毒이 周身患處에 凝結되어 痼疾로 變하는고로 豫候는 不良한 것이다

대체로 痛風은 돌연히 발병하는 것이지만 外邪三氣와 合併하게 되면 더욱 어렵다 할 것이다. 急, 慢性을 가리지 않고 痛症은 夕陽에 심하게 되며 전신의 關節은 어느 곳이나 오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始發은 발가락으로부터 무릎, 이어 발목, 손가락, 팔목, 목뒤부분, 앞뒤늑골, 尾骨 등이 腫痛하고 또는 심한 高熱로 寒熱이 較差되고 이어 消化不良證이 오며, 小便量은 줄어 지니 自家汚毒의 濁血性疾患이 된 것임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解熱로 退寒通氣하여 尿量이 많아지면 痛症도 수그러 드는 것 같지만 이는 病이 나아서가 아니라 三氣變化로서 關節痛의 變形을 惹起하게 되는 것이다. 그 病症은 變形性慢性 關節炎이라고 筆者는 부른다. 이런저런 이유로 痛風이 數次에 걸쳐 再發을 反復하다가 마침내 變形性 慢性關節炎으로 移行하게 되면 軟骨은 化石처럼 硬化되는데 이리되면 男子의 경우 腎機能이 저하되는 것이다.

이 원인은 血液中の 汚毒이 除去안될 경우 毒素는 變化하여 尿酸으로 移行하고 이어 肥滿과 高血壓 動脈硬化 등 수 많은 合併症이 誘發되는 것이다

이에 痛風의 進行과 關節炎까지의 藥材解說을 論하고자 한다

### 3. 方材解論

## □ 학 술

### 1) 痛風症

#### ① 病源一論

常日에 酒間珍味를 좋아하며 飽腹滿庫時에는 食困으로 坐臥多睡로 脾胃의 困倦해지는 틈을 타 風寒濕이 侵犯하여 胃風腸鳴으로 寒受腸瀉하게 되며 長流濕洩이 久隱滯氣로 因하여 以致經絡하니 바로 痛風인 것이다. 痛風은 上述한 바와같이 老衰하여 氣血이 消耗됨에 따라 忽然關節痛을 야기하며 臟器自體의 虛弱으로서 濁物이 如火灼이 된다

#### ② 方劑藥材論

蒼朮, 威靈仙을 主材로 赤芍藥, 草烏, 황기, 羌活, 肉桂, 오약, 방풍 등으로 방제를 選하되, 服藥中의 忌食은 酒, 色慾, 특히나 羊肉, 鷄肉, 구葉 등이다 藥材解義에 앞서 今世名醫들의 方劑選考를 잠시 살펴보면 「虛者는 四物」을 混用하였고 「實者는 追風引經劑」를 混用함이 역역하였다 혹자는 「膀胱除熱劑와 絡瘀追濕材」도 多量混用함을 볼 수 있었다

위에 記錄한 蒼朮과 威靈仙을 主材로 한것은 ▲ 蒼朮은 祛風濕痺와 腸濁濕熱과 脚膝痛牽과 肢節腫痛과 燥濕健脾之要藥인데다 瀉風濕瘀肢節腫痛을 鎮經劑 하는데에 最要良材이다

▲ 威靈仙은 祛風除濕 通絡止痛과 膀胱排濁之材이다 投用臨床의인 立地에서 볼때 風濕痺痛 筋骨痺痛, 산통 등 經絡止痛의 常用藥材로서 靈仙除痛飲같은 方劑도 있다 或有 民談藥材로서는 血壓降火下에 有效함을 立證하며 尿瀉不利로 膀胱不循에 의한 毒變爲酸을 通利排尿作用으로 葡萄球菌을 追排하는 能力을 가지고 있다

#### ③ 病源二論(痛風 風濕腫)

飽腹爲多睡이면 風濕之邪가 留於經絡肌表에 浸入한 관계로 惡寒 惡熱, 膠着에서 얻어지는 局所圓型浮腫이 誘發되는데 이 腫氣는 주로 手大脂節이나 손목, 무릎 등에서 寒濕相乘凝結로 둥글게 水脹型의 腫氣가 생긴다 이러한 腫氣로 脾胃에 留入된 食而不消物의 原因이기도 하다 周身筋肉痺痛이 早晨則 面腫이 생기며 夕晚則 肢末起腫이라 古典은 記錄하고 있다 이러한 病症은 風淫寒熱이며 濕凝腫氣라 하여 류머티스性炎이라 본다

### 2) 方劑藥材論

升麻, 白芷를 主材로하여 류머티스성염으로 發斑腫留가 面部에 생겨서 보기흉한것을 治癒하는 主方劑의 君藥으로 쓴다 승마는 發表透疹과 清熱解毒劑로서 肺와 脾胃清濕을 先治함에 陽의 氣昇으로 因하여 熱毒斑疹과 面胞出腫을 消滅케하고 表皮强寫하는 紫外線熱과 내번직성하는 氣昇風熱을 發散케 한다

白芷는 肺胃經에 濕媛을 주며 祛風解表消腫排膿에 爲主하는 藥材로서 鎮靜劑로도 有名하

니 마치 止痛에 卓越한 효력이 있다 鼻邊紅焦症에도 特異한 效力이 있으며 配以 浦公英으로 류머티스성 치은염에 神效한 鎮靜止痛力이 있다 또한 中樞脊髓活動에 장애를 주는 「微細血管凹凸等症」患者에 亦效하다. 夕晚肢末起腫은 陰氣下降으로 下肢濕邪가 關節에 濕腫을 有發시킨다 이는 脾腎의 汚濁歸還의 불순으로 膝腫과 足大指內邊處에 赤腫이 생기며 濕凝水結이 담지된다.

위 증세에 相配補助材로는 향부자, 방기, 마황, 적소두 등이다

### 3) 病原三論(痛風 足肢痛)

乾渴之症에 찾아드는 氣血不足性으로 中脘斷氣의 틈을 利用하여 流利灌漑의 失期에 따라 腸中濁濕이 壅滯됨으로서 경락에 잉여되고 굴곡처에 침투되면서부터 足脂部에 着絡作痛케 된다

#### ① 方劑藥材論

계지, 玄胡索을 主材로 하여 尿毒의 산성이 局所依着의 不履狀態를 通竅케 하고 肢末收縮不利와 丸塊痛勢를 交化止痛케 하므로 桂枝가 配玄胡를 作配한 것이다. 이는 消導行經하야 鎮靜케 한다 屈伸에도 完만한 活動力을 준다 添加材로는 생견지황 위령선, 백복령, 반하, 지각, 좁쌀로 빻은 탁주 등을 配作해 쓴다

#### ② 病原四論(痛風 · 膝痛)

下肢元氣不足於深痛으로 원인은 腎虛肝衰로 풍한습 삼기내습하여 倒致된 것이 膝中骨間內蒸이며 股脛足膝隱산痛으로 起舉屈伸不利케 된다 痛而數十餘日이 경과가 되면 骨邊筋而不利해진다 또 억제로 屈伸하기 위하여 지나친 운동으로 이겨낼려고 하면 關節에 염증이 생겨 화농케 되어 濕腫集膿이 된다

③ 膝痛三氣因襲症에는 三氣飲(方藥合編) 加 浦公英一錢半 桑寄生八分 牡丹皮五分 등

④ 寒濕作痛 溫浴爲按止痛者에는 獨活奇生湯 加 부자 포干各5分 等

⑤ 二妙丸加 강활, 방풍, 승마, 시호

⑥ 萬靈丹을 주재로도 흑자는 다용한다

### 4) 病原五論(痛風 風痺)

風邪乘虛襲入於肌肉으로 국부혈맥휴손이 되어 以致遊走 筋脈之中에 逗留風停之疾이라 본다 風은 거래관절간으로 체온유지가 難한 場所 즉 手脂端(손가락끝부분)에 제일 많이 오는 비증으로(손가락 끝저리는 증세)본다 혹은 인체 어느곳이든 筋肉結節의 不舒로 痛處는 或赤 或腫이라 하였으나 만일 구중에 痛處를 두고 발적증통이 유발케되면 現代式治療方式

## □ 학 술

으로 齒科醫院을 갈 것이나 千不當 萬不當한 일이다. 이는 바로 痛風性風痺로 口中痛虛가 발발한 것이다

### ① 方劑藥材論

蛇매草 浦公英, 강활을 主材로 하여 痛風性 또는 류머티즘성 등으로 국부종치를 消滅케 하여야 한다 本材도 殺菌작용과 抗腫瘤作用이 있으며 清熱解毒에도 神效하다. 浦公英은 黃色帶葡萄球菌, 皮膚협착眞菌抑制作用으로도 유명하다

또한 風傷於腫處가 구중에 유발했다면 蛇매草爲君, 포공영과 강활을 배합하여 투용하면 最宜妙方이다. 이외에도 방풍, 진교, 葛根, 黃栢, 의이인, 木果, 曲甘 等이다

② 風痺百節流注痛, 오약순기산加 강활, 南星 창출 等이다 투용량은 選劑自身에 의존하라.

③ 十脂端疼痛痺, 諸各은 체질에 따라 통세도 다르겠지만 大同小異하다 그러므로 方劑選定은 各者選擇할 것이나 虛實을 爲主하며 그에 준한 添加物로서는 木別子 地龍 白何首烏 威靈仙 海東皮 等이다

### ④ 病原六論(痛風 冷流注)

大宇宙의 森羅萬象이 人間의 小宇宙인 五臟六腑를 협공위해함에 있어 風寒濕인 流注變邪가 不得不 臟腑에 浸入하여 風變於寒이나 寒變於濕結痰生으로 上下流注하는 故로 風寒腸鳴과 濕滯로 食而不消를 誘發하면서 痛症이 온다 제일 外浸이면 畝皮引經이나 筋肉痺도 招來한다 그러므로 체기허실과 음양변증도 심察을 요할 것이다 이 증세가 수월간 경과가 되면 냉류한습이 변질이 되어서 담생통풍이 발생된다. 혹 骨寒而痛과 筋縮不能으로 하체의 굴신이 부자연스럽고 破潰則流瘀血 및 黑水가 출현된다

### ⑤ 方劑藥材論

보음위주하며 허실을 심察하라 예후는 좋지 못하다

## 4. 結 論

인체는 三白六十數餘個의 骨節을 지니고 相互連結로 한 구성체제를 이루고 있는데 자연의 森羅萬象의 交和에 의하여 직간접으로 假性和 傳染의 兩性論症인 急慢痛風이 있다 痛風은 지나치게 痛勢에 대한 交着이 심하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無痛性으로 局部關節에 腫氣만 유발하는 사례도 許多히 볼 수 있다 이러한 症候群 亦是 다른 合併을 초래한다. 또한 어떤 문헌을 인용해 본다면 痛風도 正病論이 아닌 가칭 病名도 論하고 있지만 꼭 이 학설을引

用解説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痛風에 대한 研究과제는 끝도 없겠지 만 우선 이상과 같이 써보았다.

(경남 마산시 합포구 상남동 T. 46-8496)

《참고문헌》

동의보감  
동의경혈학  
병과 치료  
의학정전  
증치준승  
진단과 치료



治療 三法

新病에는 去邪니 大劑로 猛治할 것이오  
稍久에는 養正이니 寬猛으로 兼治할 것이오 -東垣-  
久病에는 藥必 平和니 寬治와 緩治할 것이다 -入門-